"병원 專門職種간 협력 증진토록"

李保社, 학술대회서 강조

李海元보사부장관은 11월22일 『병원운영의 효율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국민의료비의 급속한증가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병원내 각 전문 職種간의 보완적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장관은 『병원은 최선의 진료를 확보할 수 있는 병원별 진료감시 내지 지도체제를 확립하여 의료사고와 이로 인한 분쟁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병원의 설립목적과 유형별 고유기능을 발전시켜 병원간 보완적 협력관계가 증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우리나라 병원 개원 1백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李장관은 『우리나라 病院人은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슬기와 노력으로 극복하면서 병원계 발전에 헌신한 先導者일 뿐만 아니라 부족한 병원시설을 민간차원에서 육성시켜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이룩하게 한 공로자』라고 치하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양질의 진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병원은 국민의료의 핵심적 場』이라고 지적, 『병원협회가 중심이 되어 건전한 진료풍토 조성 등에 기여해 왔다』며 우리나라 병원 개원 1백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병원계의 노고를 치하했다.

医療扶助制 수정 건의

大韓病院協会는 정부가 실시계획인 의료부조제에 대하여 대상자의 진료수가는 최소한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토록 하고 진료병원도 국공립병원을 우선해 지정해 줄 것 등을 보사부 건의 했다.

病協은 『극빈층 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계획인 의료부조제는 의료보험수가의 83%에 불과한 비현실적인 의료보호수가 적용범위를 더욱확대하게 됨으로써 병원의 경영난을가일층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 최소한 의료보험수가 적용 △ 국공립병원 우선 지정 △ 진료증의 5~10%는 병원장이 발행케 하여 병원의 악성 미수금발생이 경감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 등을 건의 했다.

「病院 管理 학술대회」성공리 마쳐

全國에서 病院人 참석 盛況

大韓病院協會는 우리나라 병원 개원 1백주년 기념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를 11월22·23일 이틀동안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가졌다.

「변천하는 사회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병원관리 향상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 병원의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관계자 5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22일 오전 9시40분에 시작된 개회식에는 白樂院대한병원협회장을 비롯, 李海元보사부장관, 文太俊대한의학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白병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병원의 1백년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으나 病院人들은 이를 피와 땀으로 슬기롭게 극복 오늘의 발전된 병원을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 건설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白회장은 또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病院史의 제2장을 여는 벅찬 자리에 서있다』고 말하고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병원이 보다 나은 향상발전의 토대를 이룩하자』고 당부했다.

개회식에 이어 열린 특별강연

에서는 △ 우리나라 병원의 지나간 1백년간의 발자취(全鍾暉·인제대학 교수) △ 향후 1백년간의 병원 발전에 관한 전망(洪準植·뉴욕 카톨릭의료원) 등 2편의 연제가 발표됐다.

이어 병원의 각 분야 관리향상 방안을 찾는 본학술대회에서는△ 약제업무(趙南春·서울대병원 약무과장) △ 간호(金貞愛·서울백병원 간호관리부장) △ 의무기록(廉舜圭·의무기록협회 홍보이사) △ 방사선(李亮基·이화여대의료원 방사선과 기사장) △임상병리검사(李周燮·한양의대병원 임상병리과 기사장) △병원급식(金炳玖·대 구로병원 영양실장)△ 원무관리(裵聖俊·서울보훈병원 원무과장) △ 의료기기(許秀珍·서울대병원 의공학과 기사장) △건축설비(金光文·한양대 공대 교수) 등의 관리향상방안이 발표됐다.

이밖에도 일본병원회 의사연구위원장 미까미 아끼라씨의「보험시대 병원관리」란 특강이 있었다.

이틀째 열린 종합토의에서는黃泰植준비위원장을 좌장으로한 전 발표자들이 참석, 종합토론을 갖고『병원의 각분야가 서로합심하여 효율적인 병원관리 및 발전에 기여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白樂院병원협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특별강연을 한 全鍾暉 洪準植씨에게 22일 각각 감사패를 주었다.

내년도 179개 修練病院 지정확정

專攻医 모집인원도 함께

내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專攻医 모집인원이 확정됐다.

大韓病院協会가 保社部와 함께 11월21일 확정한「86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과 전공의 정원」에 따르면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은 74개, 인턴 수련병원은81개, 단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은6개 등 총 1백61개 병원이며 예방의학과 수련기관은 18개기관으로 총계 1백79개 병원과 기관이 지정됐다.

또 專攻医 정원은 인턴은 1천8백67명, 레지던트는 1천7백5명으로 확정됐다.

새로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춘천성심병원이며 인턴병원에서 승격한 병원은 부산위생병원 등 6개 병원이다. 새로 인턴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서울기독병원 등 27개 병원이며 예방의학과 수련기관으로 새로 지정된 기관은 인제의대와 영남의대 등 2개기관이다.

한편 전형일정은 전기전형의 경우 필기시험은 12월4일 오전 10시, 면접시험은 12월5일 오전 10시에 각각 치르게 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9일 오전 10시.

또 후기전형은 12월23일 오전10시, 면접시험은 12월24일 오전10시 각각 갖게 된다. 합격자 발표는 12월27일 오전 10시.

"医療保險酬価 대폭 현실화 해야"

病協, 保社部에 건의

大韓病院協会는 현행 의료보험 수가의 최저 25% 인상과 행위별 수가 가운데 5백40개 항목의 개정과 신설 또는 삭제를 보사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에 따르면 현행 의료보험수가의 입원료 2천3백원을3천3백원으로, 또 기본진료료는 초진의 경우 1천2백30원에서1천5백40원으로, 재진은 8백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인상해 줄 것 등이다.

행위별 수가 가운데는 검사료는 3백93개 항목 중 1백75개를 개정, 27개를 신설하고 1개를삭제하는 등 2백3개 항목을 조정하는 등 총1천1백11개 중 5백40개 항목을 조정 건의했다.

防焰침구 87년까지유보

內務部는 大韓病院協会의 건

의에 따라 병원의 방염된 환자침구류 교체를 오는 87년 말까지 유보키로 했다.

내무부는 지난 10월31일 病協에 보낸 회신에서 『귀 협회 건의에 따라 방염침구류에 사용되는 방염제가 실제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 검토와 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염침구류 교체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洪박사 초청간담회|성황

大韓病院協会는 미국 뉴욕 가톨릭의료원의 洪準植박사 초청간담회를 11월 25일 정오 외교구락부에서 가졌다.

이 간담회는 전국의 의료원장 및 병원장 등 병원 최고경영자50여명이 참석 洪박사와 DRG 제도 등 미국의 최근 의료동향 및 앞으로 병원계가 나아갈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割引진료로 물의 없도록

保社部는 최근 소비자 할인단체 가맹점으로 가입한 의료기관의 할인진료행위는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각급 의료기관은 이같은 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당부했다.

보사부는「소비자 공익회」란 소비자할인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가맹회원수첩에 의료기관의 명단을 게재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또한 못하며 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그 광고방법 및 회수 등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 단체에서 회원수첩 등에 의료기관 명칭 등을 기재함은 허용되지 않는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특정 법인체에서 특정의료기관과 사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체 회원에게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이의 근거 또는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의료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지

(通卷 130 號)

'85년 12월호(月刊)

등록일자 : 1972년 4월 27일
등록번호 : 제 라 1691호
인 쇄 일 : 1985년 11월 31일
발 행 일 : 1985년 12월 1일
發 行 人 : 白 樂 晥
編 輯 人 : 黃 泰 植
印 刷 人 : 金 善 勳
발 행 소 社團法人 大韓病院協會
우편번호 1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 가49 전화 : 275-7066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Vol.14. No 12
DEC. 1985
Publisher : Nak Whan Paik
Editor in Chief : Tae Sik Hwang
Published Monthly
by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49, 2-Ga, Chung Moo-Ro,
Seoul, Korea TEL. 275-7066

□ 編輯委員 : 韓斗鎭 朴利甲 金教命 黃泰植 梁萬奎

* 이 協会誌에 게재된 내용은 반드시 本会의 公式的인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